

몰려오는 태풍을 저기압 수준으로 바꾸어야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돼지 가격이 5월말에는 회복되기를 기대했지만 불황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이 10년전 수준인 2,2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양돈 뿐만 아니라 한우·낙농업·채란양계·육계 등 축산 전업종이 불황이기 때문에 사료·동물약품·기자재업계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이다.

지난 5월 16일 축산신문이 주관해서 관악산 입구에서 축산인 250여명이 소비홍보를 한데 이어 26일에는 축산물 소비촉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협회도 예년에 비해 어려운 사정에서도 홍보전단, 요리책자 등을 만들어 소비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25일에는 돼지고기 요리 교실을 개최하여 돼지고기 소비에 영향력이 큰 주부·요리사·영양사 등을 상대로 돼지고기의 우수성과 맛있는 요리방법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시식도 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사료구매로 IMF한파가 불어온데 이어 이번에는 소비 감퇴라는 태풍으로 몰려오고 있다.

이번 태풍을 저기압 정도로 바꾸는데 실패하면 우리나라 축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지난 5월 22일 통계청은 완전실업·일시취업·불완전 취업자가 총 1백95만2천명, 즉 약 2백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발표 하였다.

업계에서는 실업자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 가족까지 합하면 적어도 천만명의 구매력이 없는 새로운 계층이 생긴 것이다. 축산물 소비가 쉽게 증가할 수 없게 되어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한다.

같은 날 22일 미국은 우리나라가 UR협상에서 약속한 쇠고기 수입 의무량에 대한 수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정부 간 이에 대한 협상을 요청하였다는 보도가 있다.

돼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는 데도 돼지고기는 수입되고 있다. 앞으로 한국 양돈산업의 모델을 그리고, 지금까지의 양돈정책을 재검토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생산 구조로는 경쟁을 할 수 없으므로 양돈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들을 실행에 옮겨야 하고, 현재의 양돈농가의 부채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간과하고 외부로 노출된 문제만 해결하려면 우리는 모두 침몰하게 될 것이다.

미국 양돈생산자협회도 한국이 돼지고기 수출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정부가 막대한 보조를 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개방화·세계화·국제화란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의미하며 이러한 무역 전쟁에서 패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서서히 피부로 느끼게 된다. 공생공존·국가간 협력 등 좋은 말들이 많이 있지만 국가간에 이해가 대립되면 상대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 속성이다.

우리 민족은 한번도 외국을 침략한 사실이 없는(타국의 요청에 의해서 해외 파병을 한 적은 있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임을 자랑한다.

그러나 외국을 침략한 적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끊임없는 내분·당쟁을 쉬지 않고 살아와 당쟁과 내부에서의 싸움에는 많은 노하우가 축적된 민족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인신공격·허위선전·중상모략·지역감정 등 그동안 쌓아

온 노하우를 총동원 하고 있다.

이제 약간의 돼지고기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을 겨냥한 많은 육류수출국에 대한 준비는 소홀하다. 내부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도 힘들고 합의된 것도 승복하지 못한다. 대화와 토론 문화에 숙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돼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는 데도 돼지고기는 수입되고 있다.

앞으로 한국 양돈산업의 모델을 그리고, 지금까지의 양돈정책을 재검토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생산 구조로는 경쟁을 할 수 없으므로 양돈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들을 실행에 옮겨야 하고, 현재의 양돈농가의 부채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간과하고 외부로 노출된 문제만 해결하려면 우리는 모두 침몰하게 될 것이다. **養豚**